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주요 강단 - 마태복음

## 그 이름 예수

### (마 1:18-25)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대속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덮어버리다’는 뜻입니다. 하얀 눈이 하얗게 내려 땅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덮여져 하얗게 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하얗게 덮으시고 씻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The Name Jesus

### (Matt. 1:18-25)

Jesus came to this earth and died on the cross in order to atone the world from all sin.

The prophet, Isaiah explained the grace of this atonement in the following.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as crimson, they shall be like wool” (1:18).

‘Atonement’ means ‘reparation for a crime’ ‘kaphar’ in Hebrew. Just as the snow falls pure and white on the earth to cover the dirty and ugly things, Jesus Christ covers our sins which are as red as crimson, in His wonderful power and grace.

### 1.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21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스 발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간 사람의 이름도 여호수아, 예수였고, 스룹바벨과 함께 제 2의 성전을 지은 제사장의 이름도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예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있어 왔습니다.

### 2.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20절)

마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실에 대해 꾸며진 이야기로 매도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동정녀 탄생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사도신경을 통해 매일 고백합니다.

### 3.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오직 일 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며 휘장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서 구원해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에서도 심지어는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며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1. God's Son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v. 21).

The name Jesus means ‘Jehovah saves.’ As Mathew witnesses, it also means, ‘The man who will deliver God’s people from sins’.

The Hebrew pronunciation of Jesus is [yohoshua]. The name of the man who led the Israelites to the land of Canaan was Joshua, and the man who built the second temple with Zerubbabel was Joshua too. Even now, the name has been used for long time.

### 2. He who was conceived from the Holy Spirit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v. 20).

Mathew clearly reveals that Jesus was conceived from the Holy Spirit. However, in the 19th century with Germany as the center, the fact of Jesus being conceived from the Holy Spirit was nothing but a false rumor made by liberal theological scholars. It means that they were not able to accept the virgin birth through their intellect and common sense. However, the Almighty, Creator God, is never confined to the intellect and logic of humans who were created by Him.

The birth of Jesus Christ by the Virgin Mary was prophesied by God through His prophets a thousand years earlier. We confess this tru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 3. Another name, Immanuel

Jesus’ other name is Immanuel. It means that God is with us. During the times of the Old Testament, God brought fear to the people who were not able to approach Him closely. Once a year, only a priest was able to go and meet God who was behind the curtains by the spilling of an animal’s blood.

Now, God is not far from us anymore. He became a man and came to us in order that we might see Him with our eyes and touch Him with our hands.

### My beloved Christians!

Whoever is always with Jesus, Immanuel who delivers us from evil, is able to confess like David,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the quite waters, he restores my soul.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Psalms 23:1-4).

Every day, celebrate this confession. By being satisfied with only Jesus,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 2일(월)~7일(토) 오전 5~6시, 강사: 박노철 목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4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본당2층에서 박노철 담임목사의 설교로 진행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의 동참을 기도한다. 부활절 새벽예배는 4월 8일(주일) 오전 5시에 드린다. 새벽기도회 후 8층 식당에서 직장인을 위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3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 101호

교육위원회(위원장:홍성주 장로) 주관으로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27일(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101호)에서 열린다. 이날 강의는 교육전문가 이영숙 박사(좋은나무 성품학교 대표, KBS, MBC, SBS 및 청와대 교육자문위원, Kosta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모두 참석하여 교육을 받기 바란다. 교사들을 위한 저녁식사는 교회에서 준비된다.

## 김명현 박사 초청, 금요기도회

3월 30일(금) 오후 8시 20분 - 본당

3월 30일(금) 성경과학선교회 대표이신 김명현 박사를 모시고 생명의 창조원과 간증의 시간을 가진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강사에 대한 약력은 다음과 같다.

- 김명현 박사 -

- KAIST 재료공학 석박사
- 전 한동대학교 교수
- 전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 현 성경과학선교회 대표

## 육군 제20기계화 보병사단 훈련병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

3월 31일 (토) / 출발: 오전 11시



육군 제20기계화 보병사단 훈련병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을 우리교회 비전 2020위원회(위원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3월 31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20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샘물 군인교회 본당에서 실시한다.

출발은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제 2회 의료인의 밤

3월 31일(토) 오후 5시- 801호

제 2회 의료인의 밤 행사가 3월 31일(토) 오후 5시 801호에서 열린다. 지난 의료선교 사역을 결산하며 앞으로 진행될 사역에 대하여 헌신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이며 박진아 목사의 설교를 통해 의료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된다. 대상은 서울교회에 등록된 모든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의대 및 간호대 재학생, 의료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들이다. 관계된 성도들은 이 뜻깊은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



## 서울강남노회 영동시찰회

27일(화) 오전 11시 서울베다니교회

우리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 영동시찰회가 27일(화) 오전 11시 서울베다니교회에서 열린다. 우리교회는 목사총대로 박노철,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임규현, 김안성 목사가, 장로총대로 오정수, 김광신, 노문환, 김대호, 김영준, 임훈규, 홍성주, 이복규, 박정선, 신용식 장로가 각각 참여한다.

## 2012년 3월 소요리문답부 (1/4분기) 수료자

문가자 천금엽 이선자 채영순 구연복 원영희 이윤영 박진희

### - 서울교회 엘리베이터 - 이렇게 이용합시다

교통약자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휠체어 등의 신체 보장구를 이용하는 성도와 영유아부 어린이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양보합니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42]

(문 37)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20:8)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함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20:11)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이 4계명은 다른 9가지 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로 대체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우선 신약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월절 만찬이 신약의 성찬예식으로 대체되듯이 그리고 짐승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듯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4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마28:1, 막16:2, 눅24:1, 요20:1) 그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20:11-18) 자기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왔던 다른 여인들에게(마28:7-10) 그리고 시몬 베드로(눅24:34)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눅24:15-32) 나타나셨고 그날 밤에는 열 제자와 다른 성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 정확히 한 주일이 지난 주일 밤에 도미를 포함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순절에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는 곡식의 첫 이삭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그것을 흔들고 흙 없는 솥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라(레23:11-12)한 것처럼 7일X7주= 49일 다음날 곧 주일에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주일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고로 초대교회는 주일을 예배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전16:2에서 바울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는 이미 주일에 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20:5-12에 의하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한 주간 머문 후 그 주간의 첫날에 즉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7) 그리고 바울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 배타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16) 주일성수는 초대교회의 중요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1:10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한 것은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다음주 계속)





탈북자 복송에 관하여

# 탈북자 복송문제와 신앙인

최근 비등하는 탈북자 복송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8일 탈북자 10여명이 중국 선양 공안국에 체포되면서부터였다. 이 소식을 접한 한 국회의원이 관련 내용을 언론에 뿌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고, 지난 12일엔 유엔 인권이사회도 이 탈북자 문제를 다루면서 국제사회에 공론화됐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탈북자들은 하루에도 몇 명씩 '조용히'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02년 한중이 합의한 '탈북자 문제 3대 원칙' 즉, 정치화하지 않고, 국제화하지 않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라 정부는 중국 당국의 묵인 아래 지금까지 2만 명 넘게 한국에 데려왔다. 이것이 이른바 '조용한 외교'다.

조용한 외교에 대한 비판론이 최근 커지고 있다. 조용한 외교는 탈북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정부가 매번 중국에 특별한 고려를 요구해야 하고, 여론 눈치를 봐야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크게 노출이 되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탈북자와 그 가족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도 그래서 조용한 외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 공개되면 묵인해오던 중국 정부도 원칙대로 복송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정부가 조용한 외교만 할 수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잠깐 제쳐두고, 신앙인인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와 보자.

탈북자 문제는 누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알렸나? 바로 우리교회였다. 우리는 1999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여 2년여 만에 천 만 명이 넘는 기록적



인 서명을 받아 UN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운동은 이종운 원로목사와 몇몇 인사들의 '기도모임'이 발단이 됐다. 사선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의 참상을 보고, 이들을 돕자는, 순수하고도 거룩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접근도 딜레마에 빠진 우리 정부나 중국정부를 탓하며 목소리를 높이거나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 행동에 동조하기보다는 신앙인의 초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가지 숙제가 있다. 이미 남한에 와있는 2만여 명의 탈북자 얘기가. 상당수는 아직 남한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남한 정착 탈북자의 실업률은 12.1%로 일반 국민의 3배에 이른다. 일부 탈북자는 못 견디고 다시 '탈남'을 하여 유럽 등으로 떠나고 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탈북자를 돕고자 한다면, 굳이 먼 곳에 눈을 돌 필요도 없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 많이 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김민철 집사 (순례자 차장)

사순절 기도

## 주께서 상함은

오상수 집사 (제13교구)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요

주님께서 질리심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CORAMDEO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며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여 신행일치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의 삶으로 인도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한마음·한가족 잔치를 준비하며

## 13교구, 한마음·한가족 잔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명구 집사 (13교구 간사)

작년 말, 2012년에는 교구별, 다락방 별의 소그룹 중심으로 한가족 한마음 잔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그때는 실감을 못했었는데 실제 상황에 접하게 되니 걱정이 우선하였습니다.

특히 다락방 리더 모임만으로도 1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13교구 입장에서는 행사일정, 장소, 참석인원, 진행, 예산 등 세사적인 불안함만 가득하였고, 지금까지 교회에만 의지하다가 직접 진행하려다 보니 시작부터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장석남 교구목사님, 교구장 조정식 장로님 등 13교구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았습니다.

우리들의 걱정이 많을 때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

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의 힘과 격려에 의지하여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된 많은 의견을 1차적으로 정리하여 “가장 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인 우리들의 집, 아가페타운”에서 5월12일(토)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인 참석예상인원, 행사진행, 예산 등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4월17일(화)에 다락방장 야외기도회 때 다시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빌 2:2)”라는 말씀처럼 하나된 마음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마음, 한가족잔치에 13교구가 힘찬 나팔수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13교구가 서울교회의 최근거리, 주력교구로서의 소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전도 - 도고팀방

# 척박한 땅 인도에서

인도 선교 도고팀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 장수 기도부대 중 하나로, 매주 주일 12시 40분 902호에서 모임을 갖는다. 얼마 전 도고팀에 방문한 인도 파송(우상식) 선교사로부터 현지 사정을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실히 기도하고 있다.



우상식 선교사님과 함께 한 인도선교도고팀

다락방 모임에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다가 도고팀에 나오게 되었다는 노진아 집사는 "10년간 두바이에 거주하며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게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기에 영적 탄압이 많은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늘 마음에 쓰인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로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도고팀원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로)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다.

인도는 남부 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갖는 많은 지역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민중의 대다수(약83%)가 힌두교를 믿으며, 전국의 여러 곳에 힌두교 성지와 사원이 있다. 힌

두교는 오랜 세월을 걸쳐 민간신앙과 불교 등이 융합하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교조와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신화·전설·의례를 행하고 있다. 이런 영적으로 혼잡스러운 곳에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선교사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육하며, 장차 주님의 일꾼들이 현지인 교회와 나라 지도자들로 쓰임받길 소원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 인도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조범연·김희정 선교사

- 인도신학교에서의 강의와 학생지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신학교 제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매주일 설교와 목회자상담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힌디어 설교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라빈, 라해, 채린)의 학업을 위해
- 인도 현지 선교회 총무로서 맡겨진 인도교단과의 연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 우상식·김정옥 선교사

- 나가나할리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 나가나할리 교회와 유치원의 대지 구입·건축을 위하여
- 서울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나가나할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 토요 어린이 제자훈련과 교회학교 부흥성장을 위하여
- 고아와 과부를 위한 호스텔을 준비할 수 있도록
- 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를 위하여
- 빈민가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하여
- 하은, 성은, 고은이의 믿음과 학업을 위하여
- 희생과 헌신된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최진경 성도 (편집부)

### 반갑습니다

##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는 지금



### 조명희 성도 (교구)

'살롬!'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곳 서울교회에 와서 받게 된 문자 메시지의 첫 단어입니다. 새가족부 지도 교사님, 교구담당 목사님, 그리고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권사님께서 때때로 전화를 주셔서 근황을 물어보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부족한 사람을 기억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서울 교회는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보석같이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1월 말에 귀국하였습니다. 두바이에 있을 때부터 대치동에 있는 서울 교회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귀국하자마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강좌를 4주에 걸쳐 마치고 목사님과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 후 간담회에서는 새가족 모두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초신자로부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사람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졌지만 공통점은 모두 같았습니다. 서울교회가 너무 좋고 설교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는 새가족 모임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이미 특례입시를 경험한 엄마들이 조언도 해 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엄마들이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장 일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저희 집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다고 하여서 든든합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주선해 주신 여러 분들이 있기에 멀리 외국에 있다가도 이곳 대치동에 오면 서울 교회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이곳 서울교회에서 신앙 생활의 뿌리를 내리려는 지금, 미지근함이 없이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 27일(화) 한국군선교 교역자 수련회에서 개회설교와 특강을 한다.
- 특남 : 6교구 서준호 성도 이고은 성도 가정
- 특녀 : 2교구 김준희 성도 이재희 성도 가정
- 주간식당봉사 : 도르가전도회(3.25) 루디아전도회(4.1)
- 금주의 식사 : 김명숙 은퇴권사 (손자 결혼을 감사하며) 교회제공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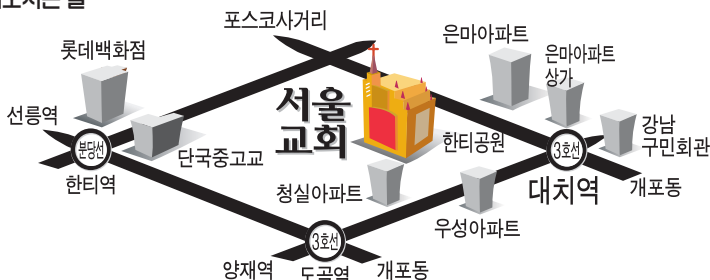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4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있는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2. 3월 27일(화) 오후 7:30분에 있는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를 통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준비하고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3. 3월 31일(토)에 있는 육군 제 20기계화 보병사단 훈련병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을 통해서 비전 2020의 꿈이 힘차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